

## 陶山十二曲攷(一)\*\*

崔 珍 源\*

• 目 次 •

- |                 |                  |
|-----------------|------------------|
| I. 問題提起         | III. 陶山十二曲의 『風流』 |
| II. 翰林別曲類의 『風流』 |                  |

### I. 問題提起

陶山十二曲을 주대상으로 하여 退溪·李滉(1501~1570)의 문학세계를 살펴보겠다. 도산십이곡을 주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그것이 사림과 詩歌(퇴계 이후의)의 중심적 지표였기 때문이다.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짓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하여는 陶山十二曲跋을 살펴볼 수 없다.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문을 들겠다.

도산십이곡은 도산노인의 지은 바다. 노인이 이것을 지은 것은 무엇 때 문인가. 우리 동방의 歌曲은 무릇 淫哇함이 많아 말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한림별곡류같은 것은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마는 矜豪於蕩하고 褻慢 戲狎하여 더욱 군자의 宜尙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李麓六歌라는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그것(李麓六歌)이 이것(翰林別曲類)보다

\* 전 성균관대 국문과 교수

\*\*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제13호(1984), 도남학회, 『도남학보』 제7·8호(1985) 게재논문

낮기는 하지만,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은 것이 역시 아깝다.

노인은 본래 음율을 모르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을 듣기 싫어하여, 閑居 養疾의 여가에 무릇 情性에 느낌이 있으면 매번 시로 나타냈다. 그런데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畵(詠) 수는 있지만 노래할(歌) 수는 없다. 노래하려면 반드시 우리말(俚俗之語)로써 엮어야 하는데, 대개 우리말의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李膺의 六歌를 본따서 도산육곡 둘을 지었으니, 그 하나는 言志이고 그 하나는 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 부르게 하여 几席에 기대어 듣기를 바라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게 한다면, 더러운 마음을 씻고 感發融通케 할 수 있을 것이니, 노래하는 이와 듣는 이는 서로 유익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蹤跡이 매우 어긋났으니, 이와 같은 한가한 일은 혹 말썽을 일으키는 단서가 될런지 알 수 없고, 또 이것이 곡조에 들 수 있을런지, 음절에 맞을런지를 알 수 없기에, 잠깐 한 벌을 베껴 상자에 넣어두고, 때때로 내어서는 매만지고 살펴며, 또한 다른 날 보는 이의 버리고 취함을 기다릴 것이다. (陶山十二曲)<sup>1)</sup>

이 글에서 도산십이곡 제작의 동기를 세가지로 잡아낼 수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 一. 翰林別曲類는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다.
- 二. 李膺六歌는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다.
- 三. 국문시가는 漢詩와 달라서 노래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는 기존의 시가에 대한 불만이고, 셋째는 국문시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이제 이 세 가지 동기를 차례로 살펴 보겠다.

---

1) 李滉·退溪集 권43 跋

## II. 翰林別曲類의 『風流』

도산십이곡의 작품을 하나씩 들면서 위 제작동기를 살펴 보겠다. 먼저 살필 것은 「翰林別曲類는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다」이다.

퇴계는 한림별곡류를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여 衿자의 宜尙할 바가 아니다』라고 평하여 그것을 배척하였다. 그러면 어떤 점이 궁호방탕하고 설만희압한 것일까. 또한 그런 것은 왜 배척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와 『풍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한림별곡류—주로 고려의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을 지적하는 것 같다—는 한결 같이 풍류를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도산십이곡도

天雲臺 도라돌아 玩樂齊 蕭酒흔디

萬券生涯로 樂事이 無窮호애라.

이 등에 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홀고

(陶山十二曲)

와 같이 풍류를 주제의 하나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림별곡류의 풍류와 도산십이곡의 풍류,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風流』는 일반적으로는 『멋』을 의미하거니와, 그 의미 내포는 시대에 따라 생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향락적 서정』으로서의 멋일 수도 있고, 때로는 『精神的 沈潛』으로서의 멋일 수도 있다. 요는 고려인과 조선인이 풍류를 어떻게 인식하였냐에 따라 한림별곡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다.

한림별곡은 8장 중 4장 이하는 모두 향락을 노래하고 있다. 술(4장), 꽃(5장), 풍악(6장), 누각(7장), 추천(8장)이 그것이다.

한림별곡은 단오놀이 속에서 제작되었으리라 짐작되는데,<sup>2)</sup> 여기에 참석한 문인들은 『黃金酒 栢子酒 松酒醴酒·竹葉酒 梨花酒 五加皮酒』의

2) 金東旭氏は 『翰林別曲은 高宗 二年 五月 端午에 崔忠獻이 排設한 鞞鞞戲에서 성립하였다』라고 말하였다. 『翰林別曲의 成立年代』· 廷大八十周年記念論文集 p.54., 1965.

## 술을 들고는

劉伶陶潛 兩仙翁의 · 위 醉혼경 此 엇더하니잇고(4장)

兩仙翁과 더불어 陶然히 취하기도 하고, 『紅牡丹 白牡丹 丁紅牡丹 · 紅芍藥 白芍藥 丁紅芍藥 · 御榴玉梅 黃紫薔薇 芝芝冬栢』의 꽃밭 속에서

合竹桃花 고온 두분, 위 相映景 此 엇더하니잇고(5장)

『고온 두분』이 풍기는 달콤한 향내(情歡)에 젖기도 하고, 『阿陽琴 文貞笛 宗武中琴 · 帶御香 玉肌香 雙伽倻琴 · 金善琵琶 宗智嵇琴 薛原杖鼓』의 名工 名妓가 연주하는 풍악을 들으며

一枝紅의 빗근 笛吹 · 위 들고야 줌드러지라(6장)

밤을 새워가며 질탕히 놀기도 하고, 『蓬萊山 方丈山 瀛州三山』의 勝景을 바라보면서

綠楊綠竹 栽亭畔에 위 囀黃鶯 반갑두세라(7장)

춘흥에 빨려들기도 하면서, 이렇듯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특히 짝지어(남녀?)뛰는 추천놀이

唐唐唐 唐楸子 攄萊남기 · 紅실로 紅글위 미요이다 ·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아 · 위내 가논디 늬 갈세라, 削玉纖纖 雙手길혜 · 위 携手同遊景 此 엇더하니잇고(8장)

의 『혀고시라 밀오시라』는 그 즐거움의 절정이다.

이렇듯 한림별곡은 향락의 즐거움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대체로 酒·歌·舞를 매개한 官能的 즐거움이다. 『酒·歌·舞를 매개한 官能的 享樂』, 이것이 한림별곡의 풍류다. 그것은 고려 사대부의 생활의 멋이다. 그것은 『牡丹·芍藥·薔薇』와 같이 화사하다. 梁柱東氏는 일찍이

강화천도 이후 국세는 사뭇 어수선하였으나 최우 집권을 중심으로 한 귀족계급의 문화는 爛熟期에 달하였고 그 頹廢的享樂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였다. 따라서 당시 시인묵객들은 그 무신계급의 門客으로서 그 호화로운 宴樂에 參與하여 풍류·덕망을 頌揚하는 文士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山水·詩酒에 放浪自娛하는 현실도피적 풍류閒人이었으니, 『한림별곡』이 이러한 시대의 儒官의 作으로서 내용·형식 공히 향락적·풍류적 유연한 생활감정을 표현하였음은 우연이 아니다. 내용은…… 어느 연이나 호화·찬란한 생활상과 극단으로 향락적인 생활정조를 완전히 표현하였으나 말연은 풍류를 지나 그 무르익은 情痴境을 夾寫하였다.<sup>3)</sup>

라고, 한림별곡의 내용이 향락적 풍류임을 지적한 바 있다.(그런데 그 풍류가 과연 퇴폐적 현실도피적이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늘에 있어서도 한림별곡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퇴계가 한림별곡류를 『放蕩』이라고 평한 것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방탕』은 적절한 평이다. 퇴계는 이 말을 『자유분방함이 지나치다』의 뜻으로서 썼으리라 생각된다.

퇴계는 한림별곡류를 또 『矜豪』라고 평하였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림별곡은 풍류의 豪奢를 마음껏 자랑하고 있거니와, 이것을 安軸의 관동별곡·죽계별곡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관동별곡은 관동승경을 遊賞하는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그 유상의 즐거움은

3) 梁柱東·麗謠箋注 pp.229~230.

桂棹蘭舟 紅粉歌吹 위 歷訪景 괴 엇더흐니잇고(2장)  
 玉簪珠履 三千徒客·위 또오다 흐노이잇고(3장)  
 高陽酒徒 習家池館·위 四節 노니사이다(6장)

와 같이 豪氣가 넘치고 있다. 『호기가 넘치는 유상의 즐거움』, 이것이 관동별곡의 풍류다. 그리하여

三韓禮義 千古風流 臨瀛古邑·鏡浦臺 寒松亭 明月清風·海棠路 菌苔池  
 春秋佳節·위遊賞景 괴 엇더흐니잇고, 望洋亭上 滄波萬里·위 곶머기새  
 반갑두새라(7장)

그 풍류를 『千古風流』에다 끌어대어 자랑하고 있다. 이 풍류는 죽계 별곡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죽계별곡은 첫머리에

竹嶺南 永嘉北 小白山前·千載興亡 一樣風流 順政城裏……위 山水高景  
 괴 엇더흐니잇고(1장)

죽계산수를 유상하는 풍류를 내걸고는

半醉半醒 紅白花開 山兩裏에…위遊與景 괴 엇더흐니잇고, 高陽酒徒 珠  
 履三千…위 携手相遊景 괴 엇더흐니잇고(2장)

라고, 한림별곡처럼 『高陽酒徒…珠裏三千』을 자처하면서 沖天하는 호기를 내뿜고 있다. 또한 때로는 한림별곡의 情歡과 같은

楚山曉 小雲英 山苑佳節·花爛熳 爲君開 柳陰谷에·忙待重來 獨倚闌干  
 新鶯聲裏·위 一朵紅雲垂未絕·天生絕艷 小紅時에·위 千里相思 또 엇  
 더흐리잇고(4장)

그 어떤 무르녹는 情歡에 잠기기도 한다.

李明九氏は「한림별곡은 문인의 華麗·悠然·得意·新鮮·明朗·展望·意欲에 찬 호탕한 기풍이 넘쳐 흐름이다」, 「관동별곡은 관인의 得意에 찬 감흥이다」, 「죽계별곡은 신흥사대부의 得意 歡喜에 찬 현실적 생활 향유다」라고 말하였다.<sup>4)</sup>이 견해는 氏의 「경기체가는 고려 무신집권 후 중앙 정계에 새로 등장한 신흥사대부의 이데올로기의 표상이다」<sup>5)</sup>의 문학사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세 작품의 「豪宕한 氣風」이 과연 氏의 견해와 같이 「신선하고도 명량」한 것인지 어떤지는 문제이거니와, 하여튼 호탕한 기풍이 넘쳐 흐르고 있음은 사실이다. 매장마다 되풀이 되는 「○○景 과 엇더흐니잇고」는 그 호탕한 기풍의 자랑스러운 외침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퇴계가 한림별곡류를 「矜豪」라고 평한 것은 적의하다. 그러면서도 또 「褻慢戲狎」이라고 평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러면 어떤 점이 설만희압한 것일까.

죽계별곡은 한때 「善謔한 것이니 可誦할 바가 아니다」라는 평을 받은 바 있는데, 그렇다면 「善謔」을 두고 설만희압이라고 말한 것일까.

愼齋 周世鵬은 풍기군수로 있을 때 순흥의 竹溪 白雲洞에 晦軒(문성공) 安裕를 奉安하는 소수서원을 세웠다. 그리고 竹溪志를 엮어, 그 속에 학자의 風詠할 歌曲을 실었는데, 그 가곡은 謹齋의 죽계별곡과 愼齋의 長歌·短歌들이다. 이 가곡에 대하여 錦溪·黃俊良(퇴계의 제자)은 신재에게 주는 편지에서 그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생(愼齋)은 일찍이 『文貞(근재)의 珠履高陽之曲은 반드시 한때 善謔한 나머지 나온 것이니 후세자의 可誦할 바가 아니다』라고 평한 바 있다. 先生은 또 聖賢格言을 翻出하여 詠歌를 지어서는, 歸正코 悠然한 浴近詠歸의 뜻과 浩然한 天理流行의 妙를 담고자 하였으니, 浩詣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두렵건대, 말은 비록 翻古이지만 아직 自爲를

4) 李明九·高麗歌謠의 研究 pp.122~124.

5) 李佑成氏도 「한림별곡은 고려의 지방풍토속에 자라난 중세초기의 新興士人들의 집단적 示威의 첫 함성이었다」라고 논하였다. (『高麗中期의 民族敍事詩』, 함대 논문집 7집 p.111, 1962).

벗어나지 못한 듯하니, 이것들을 竹溪志에 넣을 필요는 없다. 妄意에는, 竹溪之曲은 刪去하고 別錄과 儼然歌들(愼齋의 작)은 잠시 버려 두었다가 사람의 見取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sup>6)</sup>

이 글 속의 『珠履高陽之曲』과 『竹溪之曲』은 『竹溪別曲』을 지칭한 것인데, 죽계별곡이 신재로부터는 『한때 善謔한 나머지 나온 것이니 후세자의 可誦할 바가 아니다』라는 배척을 받았고, 錦溪로부터도 『刪去하라』는 배척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신재가 죽계별곡을 배척하고서도 그것을 죽계지에 실은 것은, 그것이 晦軒의 故地 죽계의 形勝을 읊은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한편 학자의 風詠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으니, 愼齋는 금계에게 답하는 글에서 『나의 가곡은 나의 자작이 아니라 모두 옛 성현의 격언에서 翻得한 것으로서 文貞의 죽계별곡을 바로잡고자(■括)함이다』<sup>7)</sup>라고 말한 것이 곧 그것이다. 하여튼 신재나 금계나 죽계별곡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마찬가지로, 그 까닭은 『善謔』에 있다.

그러면 그 선학은

半醉半醒 紅白花開 山雨裏에 · 위 遊興景 其 엇더히니잇고 · 高陽酒徒 珠履三千 · 위 携手相遊景 其 엇더히니잇고

(竹溪別曲, 2장)

와 같은 관능적 향락을 가르키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향락은 矜豪를 넘어선 방탕인데, 그 방탕을 풍류로 멋있게 韜晦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관동별곡의 『玉簪珠履 三千徒客 · 위 또 오다 호노이잇고』(3장) · 『高陽酒徒 習家池館 · 위 四節노니사이다』(6장)도 또한 그런것이라 할 수 있다. 요는 관능적 향락을 두고,

6) 竹溪志 · 『黃學正書』  
(趙潤濟 · 朝鮮詩歌史綱 pp.264~265 참조.)

7) 竹溪志 · 『答黃仲學書』

退溪는 『放蕩』이라 했고, 愼齋와 錦溪는 『善謔』이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풀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봐도 어딘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퇴계의 평 『矜豪放蕩 褻慢戲狎』을 주시하면 善謔은 戲狎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설만희압』을 『褻慢스럽게 戲狎한다』라고 풀이해 본다면, 앞에 든 방탕의 내용에서는 희압=선학은 어느 정도 집어 낼 수 있지만, 설만스러움은 찾아 볼 수 없다. 퇴계는 방탕과 희압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학은 방탕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희압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선학은 희압의 또 하나의 표현인 것 같다.

그러면 죽계별곡에서 褻慢戲狎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 잘 나타나지 않는다.

楚山曉 小雲英 山苑佳節·花欄慢 爲君開 柳陰谷에·忙待重來 獨倚闌干  
新聲鶯裏.

위 一朵紅雲垂未絕·天生絕艷 小紅時에·위 天里相思 또 엇디허리잇고  
(4장)

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봄직도 한데, 그 어떤 무르녹는 情歡을 선학(희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있어도, 그렇다 하여 설만하다고 말하기에는 주저스럽다. 그렇다면 설만희압은 다른 작품에서 찾아봐야 하겠다. 하여튼 이 善謔 때문에 죽계별곡은 한때 신재 금계 퇴계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것이다. —퇴계도 죽계지에 대하여 『지난날 商山 周景遊(愼齋)는 풍기에 있을 때 죽계지를 摸하였는데, 甫成 즉시에 入梓하였다. 滉은 여러 士友와 더불어 자못 그 病處를 지적하고 고칠 것을 청했으나, 景遊는 自是를 고집하고 듣지 않았다. 今人이 그 책을 보게 되면 병폐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sup>8)</sup>라고, 병폐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그 병폐 속에는 『죽계별곡의 선학』도 포함되었으리라 생각된다.

8) 李滉·『與朴澤之』 退溪全書 권12

한림별곡의 8장을 梁柱東氏는 『풍류를 지나 그 무르익은 情痴境을 夾寫하였다』라고 논하였는데, 그렇다면 퇴계는 이런 것을 가리켜 褻慢戲狎이라고 평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림별곡의 8장에 대하여, 池憲英氏는 『楸子是 澤丸, 皂莢은 男根의 은어가 아닌가』라고 말하였고, 呂增東氏는 『오늘에도 여자상에 밝은 사나이와 여색에 밝은 사나이를 일컬어서 유럽에서는 鄭少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sup>9)</sup>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8장 말고도 또 그런 것이 한림별곡에 있는 것일까. 그 5장

紅牡丹 白牡丹 丁紅牡丹  
 紅芍藥 白芍藥 丁紅芍藥  
 御榴玉梅 黃紫薔薇 芝芝冬栢  
 위 間發景 괴 엇더하니잇고  
 合竹桃花 高은 두분  
 위 相映景 괴 엇더하니잇고

은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장은 그 밑바닥에

女曰觀乎 여인이 말하기를 『가 보셨어요』  
 士曰既目 사나이가 대답하길 『벌써 보았지』  
 且往觀乎 『다시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洧之外 유수를 건너가면  
 洵訐且樂 참말 넓고 즐거운 곳이 있어요』  
 維士與女 그리하여 남녀는 손을 맞잡고  
 伊其相謔 이리저리 즐거움을 맘껏 가지네  
 贈之以芍藥 헤어질 땐 작약꽃 정표로 보내네

(詩經·鄭風·溱洧)

의 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毛詩는 이 시를 『鄭國의 풍속에, 三月 上巳日에 士女는 서로 戲謔하며, 작약을 보내 思情之厚를 맺는다. 이 시

9) 呂增東·『“고려노래” 연구에 있어서 잘못 들어선 점에 대하여』 韓國詩歌研究 p.113, 1981.

는 浮奔者의 自敍之詞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合竹桃花 고운 두분 위 相映景 그 엇더흐니잇고』는 작약을 주고 받으며 희학하는 남녀의 情歡을 은유한 노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남녀희학을 전통적 시해석은 한결같이 『淫奔』이라 평하였다. 그렇다면 퇴계는 이런 것을 가리켜 설만희압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 5장의 설만희압을 다른말로 표현한다면 『善謔』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관능적 향락을 『멋있게 은유한』 것이다. 이 멋에서 한림제유—고려 사대부의 풍류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그렇다면 죽계별곡의 선학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 곡의 4장이 혹시 그런 것이 아닐런지? 어쨌든 간에 이 장은 어떤 情歡을 풍기고 있다.

이상 고려 경기체가의 세 작품을 살펴봤거니와, 그 내용은 대체로 관능적 향락이다. 고려 士人은 그것을 抒情으로서 마땅하게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그것은 그들의 풍류였다. 고려 말기에 불리운 漁父詞 속의 『滿目青山一般月·風流未必載西施』의 풍류가 바로 고려 士人의 풍류다. 이 시구는, 『滿目青山一般月』의 좋은 풍경이 있으니, 굳이 西施같은 미인을 태우지 않더라도 풍류는 이미 족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풍류는 본래 관능적 향락이 중심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뜻으로서의 풍류는 『風流酒色 一時人傑 날조차 몇분이신고』(金絀·花田別曲)와 같이 조선초의 경기체가에서까지 내려온다. 이와 같은 풍류를 퇴계는 『君子의 숭상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배척한 것이다.

이 배척은 조선 士人의 생활감정이 고려 士人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고려 士人은 관능적 향락을 抒情으로서 마땅하게 생각하였고, 조선 士人은 그것을 抒情으로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다.<sup>10)</sup>

10)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佑成氏도 『고려중기에 궁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은 항상 絲竹을 帶同하고 舞蹈를 즐겨했기 때문에 그들의歌唱은 가사의 내용에 관계없이 瀏亮한 음악의 協奏와 흥겨운 무용의 節旋에 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부가의 땀은 오래도록 인기를 유지할 수 없다. 고려말 이래 이조의 지배층은 전대의 귀족들의 생활취향의 소유자들이 아니고 성리학적 교양에 바탕을 둔 사대부들이었다. 그들은 음악과 무용을 사치와 방종의 導因으로 생각하고 일상에서 되도록 絲竹과 妓女를 멀리하였다.』(『고려

그러면 향락적 풍류를 배척함은 그것만으로서 가능하였는가. 규범을 이상으로 하는 조선 士人이라 하더라도 抒情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향락적 풍류를 배척하였다면 그 대신 딴 것으로써 抒情을 메꿔야 할 것이다. 여기에 도산십이곡의 『풍류』가 등장하는 것이다.

### Ⅲ. 陶山十二曲의 『風流』

그러면 도산십이곡의 풍류는 어떠한가.

天雲臺 도라들어 玩樂齋 蕭酒흔디  
萬卷生涯로 樂事이 無窮해야라  
이 둥에 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홀고

여기의 『往來風流』의 『風流』는 한림별곡류의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도산십이곡의 주제로 봐서도 그렇고, 퇴계의 만년의 道學者 생활로 봐서도 그렇다. 그것은 관능적 향락일 수는 없다.

李家源氏は 이것을 『이 往來風流는 곧 주로 門弟子를 이룬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지만, 『門弟子의 往來』만을 가리켜 풍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작품은 『言學』편에 들어 있는 것이니, 학문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초장 중장은 研學的인 내용이다. 그렇다면 종장의 『이 둥에 往來』는 研學의 여가에 도산서당 주위의 산수를 소요하는 일, 그것을 가르키는 것이다.

퇴계는 도산서당 주위의 산수를 자주 소요하여, 그 遊賞한 바를 많은 시에다 담았는데, 『陶山雜詠』은 그 대표가 될 만하다. 이 시에 읊어진 소재는 『天淵臺』, 『天光雲影臺』, 『濯纓潭』, 『盤陀石』, 『東翠屏山』, 『芙蓉峰』,

---

말 이조초의 漁父歌』·成大論文集9집 p.24. 1964)라고 논한 바 있다.

등 거의가 산수경관이다. 산수를 유상하는 일, 그것을 퇴계는 『風流』라고 말한 것이다. 요는 도산십이곡의 풍류는 『賞自然』을 뜻한다.

풍류가 賞自然을 뜻한다는 것은 이상하기까지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風情의 멋을 연상케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풍류와는 다른 것이며, 또한 한림별곡지류의 풍류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崔根德氏는 퇴계시에 읊어진 풍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종일 觀書하다가 혹 默坐思索하기도 하고, 혹 붓을 들어 글씨를 쓰기도 하며, 혹 시를 읊기도 했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퇴계의 풍류다. 독서할 집터를 잡되 두 번 세 번 걸음을 옮겨 산수의 景概를 살폈으니, 이가 바로 퇴계의 풍류다. 산수의 奇絶處를 만나면 지팡이를 끌고 홀로 소리 높이 시를 읊조리다가 종일 돌아갈 것을 잊으며, 강을 굽어보는 곳에 서실을 짓고 책 속에 파묻혀 있다가 花朝月夕을 만나면 조각배를 강물에 띄우고서 홀로 오르내리며 흥이 사그라져야만 돌아오니 이것이 바로 퇴계의 풍류다.

天末婦雲千萬峯 아스라이 나르는 구름 첩첩 봉우리  
碧渡青嶂夕陽紅 파란 물결 푸른 산에 석양이 붉다.  
携筇急向高臺上 지팡이 끌고 서둘러 높은 대에 올라  
一笑開襟萬里風 한 번 웃고 옷섭 헤치니 만리바람 시원하다.  
(夕霽登臺)

하늘과 구름과 파도와 산봉우리와 석양 이들을 높은 언덕에 올라 굽어 보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만리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호연지기, 퇴계의 풍류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칠월 열여섯날 趙士敬(穆), 金彦遇 등 몇몇 제자들과 風月潭에서 뱃놀이를 할 참이었는데 바로 앞날 크게 비가 내려서 중지되고 말았다. 띄어 애석하게 여긴 퇴계는 시를 지어 서운함을 풀었으니,

歲七欣逢赤壁秋 칠월에 즐거이 赤壁의 가을 맞아

相邀風月泛蘭舟      바람 달 어울려 배 띄우고자 했더니  
 無端夜昨江成悔      애꿎게도 어제밤 강물이 바다되어  
 千載風流一笑休      모처럼의 풍류가 한 웃음으로 끝났구나.

이것이 또한 퇴계의 풍류다.

퇴계가 매화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기품의 介潔, 雅趣의 孤高, 性情의 純粹에 매료되었음을 두 말할 것도 없지만 주렴계가 蓮을, 도연명이 菊을 사랑했듯이 다잡아 말하면 퇴계의 풍류가 매화에 응결되었음직하다.

이상의 논에서 예거된 풍류와 도산십이곡의 풍류는 같은 것이다. 그것은 賞自然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도산십이곡의 상자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는데, 그것에 앞서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어부가다. 상자연에 어부가系 시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龔巖 이현보의 어부가 纂定에 퇴계는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다. 그것은 龔巖의 『與退溪書』의

(漁父歌)의 고친 곳은 많으나 결과를 맺지 못하였으니, 取捨 抹改 添補 하여 보내줌이 어떠한가. 短歌의 『世賢』의 어구의 출처가 없는 것 같아서 더욱 온당치 않으나, 本文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으니 참조하여 고쳐 주기 바란다.11)

와 퇴계의 『答龔巖李相國書』의

어부가에 대하여 지난 봄에 任城主와 의논한 것은 온당치 못하여 참으로 僭濫하였더니, 그 후 龍壽寺에서 보내신 편지를 받아보고 전달 妄改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으므로 감히 문득 回稟치 못하고 있던 바, 이제 보내온 章句와 次序와 新作의 短歌 한 곡 모두 전달에 보이신 것보다는

11) 李賢補·『與退溪』·龔巖集 續集 권1 書

勝하여 노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sup>12)</sup>

의 두 편지를 봐서 알 수 있다. 즉 농암은 어부가를 纂定할 때 퇴계에게 草稿를 보내어 의견을 물었고, 퇴계는 그것에 대하여 조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퇴계는 어부가의 原詞를 찾는 데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으니,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세상에 전하는 어부가는 고인의 漁父之詠을 모아서 속어로서 間綴한 것이다. 긴 것은 무릇 12장인데 작자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전에 安東府의 老妓가 능히 이것을 불렀는데, 숙부 松齋先生이 이 老妓로 하여금 이것을 노래케하여 壽席의 즐거움을 도운 적이 있다. 滉은 그 때 나이 어렸으나 마음에 그윽히 기뻐하여 그 대개를 기록하였으나 그 全調를 얻지 못함을 한하였다. 그 후 存沒推遷에 舊聲은 아득하여 따를 수 없고, 몸은 紅塵에 떨어져 강호의 樂에서 멀어감에, 이것을 다시 들어 흥을 담고 시름을 잊고자 하였다. 서울에 있어 蓮亭에 놀새, 두루 묻고 찾았으나 비록 老伶韻倡이라도 이것을 아는 이가 없었다. 이것으로써 그 知好하는 이가 적음을 알았다. 이 사이 밀양에 사는 朴浚이란 이는 衆音을 앞에 이름이 났는데, 무릇 동방의 樂은 雅이든 俗이든 다 모아서 한 책으로 만들어 간행하였는 바, 그 속에 이 어부가가 霜花店諸曲과 더불어 섞여 실려 있다. 그러나 사람이 들으면 저것(霜花店諸曲)에 있어서는 手舞足蹈하고, 이것(漁父歌)에 있어서는 倦而思睡하니 웬 일인가, 그 사람이 아니면 진실로 그音を 알지 못하나니 어찌 또한 그 즐거움을 알 수 있으리오…佐郎 黃仲舉는 龔巖先生과는 친분이 두터워, 일찍 朴浚의 책에서 이 어부가(長歌)를 취하고, 또한 漁父短歌十章을 얻어 龔巖先生에게 바쳤다.<sup>13)</sup>

작자도 알 수 없으며, 비록 안동의 老妓가 불렀지만은 그것은 全調가 아닌 일부분이었고, 서울의 老伶韻倡이라도 아는 이가 없었다고 하니, 농암과 퇴계 당시에는 어부가는 세인의 이목에서 거의 망각의 상태였음

12) 李滉·『答龔巖李相國』·退溪全書 권9 書

13) 李滉·『書漁父歌後』·退溪全書 권43 跋

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세인은 비록 그것을 들어도 霜花店諸曲을 듣고서 흥겨워 춤추는 것과는 달리, 권태롭고 졸리어 흥을 얻지 못한 모양이다. 흥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 망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망각의 상태에서 어부가가 되살아난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다. 『그 사람』은 농암이고 퇴계이거니와, 그것은 널리는 부귀를 浮雲에 비기고 雅懷를 物外에 붙이는 江湖人을 가르킨다. 어부가는 농암·퇴계와 같은 강호인에 의해서 비로소 그 세계가 이해되었다. 여기에 상자연이 성립한다. 농암·퇴계가 어부가 原詞의 求得·漁父歌의 纂定에 그렇게 힘쓴 것은 결국 상자연을 위함이다. 상자연을 요구한 것은 前代문자의 풍류를 극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고는 拙稿 『江湖歌道研究』에서 고찰한 『風流』의 일부분을 개고 보완한 것이다)

## 陶山十二曲攷(二)

### • 目 次 •

I. 倣李鼈六歌

II. 隱과 忘世

III. 隱과 潔身傲世

IV. 隱과 溫柔敦厚

### I. 倣李鼈六假

퇴계는 陶山十二曲의 제작경위를 말하여 『李鼈六歌』를 본따서 (略倣) 陶山六曲 들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도산십이곡은 이별육가를 본딴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별육가에서 어떤 점을 본딴 것일까.

도산육곡의 형식 1연6장의 형식이 이별육가의 『六歌』를 본딴 것임은 『六曲』의 歌題로 봐서도 분명하다. 그러면 내용 역시 이별육가의 그것을 본딴 것일까. 이것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퇴계는 이별육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별육가는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은 것이 역시 아깝다』라고 못마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그러면 어떤 점이 『玩世不恭』이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은 것』일까. 지금까지는 그 점은 잘 알 수가 없었다. 이별육가는 가사가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리이러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柳鐸一氏는 일찍 이별육가를 『과격한 語辭로 쓰여진 풍자

1) 李滉:『陶山十二曲跋』, 退溪集 권43 跋

적 은둔의 내용을 가진 시가였을 것이다.』<sup>2)</sup>라고 추측한 바 있는데, 이 추측이 정곡을 찔렀음이 이별육가의 가사가 발견됨으로써 증명되었다.

‘李鼈六歌’가 발견된 일은 비록 漢譯된 것이고 4장뿐인 것이기는 하지만 국문학계의 하나의 경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발견한 이는 崔載南氏다. 氏는 이것을 瀼西集—藏六堂·李鼈의 從孫인 瀼西·李光胤의 詩文集—에서 찾아내어 학계에 소개하면서 그것을 ‘藏六堂六歌’라 불렀다.<sup>3)</sup>

氏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漢譯本李鼈六歌’와 도산십이곡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초점은 『완세불공의 뜻이 있고 은유돈후의 實이 적다』에 두어진다.

## II. 隱과 忘世

그러면 이별육가를 한 장씩 들면서 살펴 보겠다. 제 1장은 다음과 같다.

我已忘白驅 내 이미 백구 잊고  
 白驅亦忘我 백구도 나를 잊네.  
 二者皆相忘 둘이 서로 잊었으니  
 不知誰某也 누군지 모르리라  
 何時遇海翁 언제나 海翁을 만나  
 分辨斯二者 이 둘을 가려낼꼬(1)<sup>4)</sup>

이 장과 내용의 비슷한 시조로서는

2) 柳鐸一:『李鼈六歌攷』, 益大교양과정부 논문집, 1974

3) 崔載南:『藏六堂六歌와 六歌系時調』, 어문논총 7, 釜大 국어교육과, 1983

4) 譯文은 崔載南氏의 논문의 것을 취하였다.

是非 업슨 後이니 榮辱이 不關하다.  
 琴書를 허튼 後에 이몸이 한가커니.  
 白鷗야 機事를 니즘은 너와 닐가 흐노라.

(申 欽)

를 우선 들 수 있다.

강호인은 으레히 白鷗를 벗삼는다. ‘伴白鷗’, 이것은 강호생활의 상징이기도 하다.

蘆花에 세 만흔 갈매이는 옛벗인가 흐더라』(金聖器), 『江山에 白鷗  
 잇스니 盟誓푸리 흐리라』(李鼎輔), 『往來白鷗는 무음 뜻 먹음인지 이  
 後란 功名을 썰치고 너를 조차 놀리라』(鄭蒞), 『夕陽에 無心흔 갈매이  
 는 오락가락 흐더라』(趙憲), 이렇듯 ‘伴白鷗’를 구가한다. 왜 그렇게도  
 한 결같이 구가하는가.

그것은 ‘忘世’하기 위함이다. 이별육가의 『我已忘白鷗·白鷗亦忘我·  
 二者皆相忘』과 申欽의 『白鷗야 機事를 니즘은 너와 닐가 흐노라』는 오  
 로지 忘世에 그 뜻을 두고 있다.

孤山·尹善道도

년넝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  
 靑籊笠은 써 잇노라 綠蓑衣 가져오나.  
 無心흔 白鷗는 내 좃는가 제좃는가.

(漁父四時詞)

라고, 그런 뜻을 내걸었으니, 『無心흔 白鷗는 내 좃는가』가 그것이다.  
 내가 백구를 좃는 것도 아니고, 백구가 나를 좃는 것도 아니다. ‘二者는  
 皆相忘’이고, ‘機事를 잊음’이 한가지다. 둘은 忘世에 있어서 똑같은 존  
 재다. 忘世함으로써 ‘無心’이 될 수 있고, 그러면

功名도 이젓노라 富貴도 이젓노라.  
 世上煩憂흔 일은 오로다 이젓노라.

너움을 너마즈 이즈니 남이 아니 이즈라.

(金光燧)

세상의 煩憂한 일을 다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별육가의 제 1장은 江湖歌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퇴계는 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퇴계는 ‘伴白鷗’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이로다.

배 만흔 굴머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다다 皎皎白鷗는 머리 모습 하느고.

(陶山十二曲)

산과 대와 물을 배경하여 갈매기떼는 날아다니는데, 그것과 벗어나 忘世할 수 있을텐데 왜 白鷗는 멀리 딴곳에 마음을 두는 것일까.

선비는 비록 강호에 숨더라도 뜻은 항상 兼善(經國濟民)에 가 있어야 한다. 만약 겸선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선비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기구한 歸去來人었던 孤山도 『士의 처세는 진실로 苟進도 不可하고 또한 苟退도 不可하다. 進한즉 매번 貪利를 경계하고, 退한즉 매번 忘世를 경계함이 可하다. 그러므로 朱子詩는 ‘經濟夙所尙 隱淪非素期’라고 말하였다.』<sup>5)</sup>라고 하여, 망세를 경계하였고, 일대의 放逸之士 梅月堂·金時習도 『몸은 비록 물러가더라도 마음은 魏闕의 위에 머물고, 자취는 숨더라도 뜻은 蠹臣의 列에 남는 것이다. 이것이 선비의 立身이다.』<sup>6)</sup>라고 하여, 역시 망세를 경계하였다.

퇴계의 생각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忘世를 경계함’은 조선 선비의 이념이었다. ‘忘世’는 ‘機心을 잊는’정도에 그쳐야지 ‘그 이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퇴계는 이별육가 제1장의 망세를 ‘그 이상의 것’으로 본

5) 尹善道:『辭職乞骸疏』, 孤山遺稿 권2

6) 金時習:『三清』, 梅月堂集 권16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평한 것이 아닐까. 다음 제3장을 보겠다.

### Ⅲ. 隱과 潔身傲世

吾耳若喧亂 내 귀가 시끄러움  
 爾瓢當棄擲 네 바가지 버리려문  
 爾耳所洗泉 네 귀를 씻은 샘에  
 不宜飲吾犢 공명은 헤진 신이니  
 脫出遊自適 벗어나서 즐겨보세(3)

‘許由·巢父의 隱遁’을 欽慕 禮讚하는 일은 江湖歌道에 있어서는 다반사라 할만큼 많기도 하다. 그 몇 수를 들면

갓 버서 松枝에 걸고 九節竹杖 岩上에 두고  
 潁水川邊에 귀 씻고 누어시니  
 乾坤이 날더러 니르기를 흠과 늙자 ㅎ더라  
 (무명씨)

箕山에 늙은 스람 귀는 어이 싯듯던고  
 박소르 쫑계 ㅎ고 操壯이 늙건이와  
 至今히 潁水清波는 더러온지 잇는이  
 (金天澤)

누고셔 三公도곤 낫다ㅎ더니 萬乘이 이만ㅎ라  
 이체로 헤어든 巢父許由이 낙듯더라  
 아마도 林泉閑興을 비길곳이 업세라  
 (尹善道, 山中新曲)

의 작품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 장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향차 퇴계도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믈며 泉石膏肓을 고타 므슴흐료

(陶山十二曲)

라고 泉石膏肓의 ‘隱’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는가. 또한

當時에 네던 길홀 멧히를 버려두고  
 어디 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되 므슴 마로리

(陶山十二曲)

라고, 隱이 늦었음을 후회하고, 다시는 出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퇴계는 이별육가 제3장의 隱에 대해서는 별로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왜냐하면 隱은 제3장의 주제만은 아니고, 제2장·제4장이 역시 그렇고, 그 隱은 도산십이곡의 그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다. 제 2·4장을 보겠다.

赤葉滿山椒 붉은 잎 산에 가득  
 空江零落時 빈 강에 쓸쓸할 때  
 細雨漁磯邊 가랑비 낚시터에  
 一竿眞味滋 낚싯대 제맛이라  
 世間求利輩 세상에 이득 찾는 무리  
 何必要相知 어찌 알기 바라리(2)

玉溪山下水 옥계산 흐르는 물  
 成潭是貯月 못 이뤄 달 가두고  
 淸斯濯我纓 맑으면 갓을 씻고  
 濁斯濯我足 흐리면 발을 씻네

如何世上子 어떠한 세상 사람도  
不知有清濁 창탁을 모르래라(4)

이 두 장의 隱을 보면 ‘潔身傲世’의 기운이 넘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이 潔身傲世를 못마땅하게 여겨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다』라고 평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隱에는 潔身傲世가 따르기 마련이다. 퇴계의 제자 松巖·權好文의

遠引長往하여 王侯를 섬기지 않고 潔身傲世하여 山林을 獨善하는 일같은 것은, 비록 聖賢의 일에 어긋나는 듯도 하지마는, 또한 스스로 隱求의 樂을 얻는 것이 된다.7)

의 주장이 그 좋은 예다. 그렇다면 隱에는 潔身傲世가 용인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퇴계는 이별육가의 그것은 못마땅하게 여긴 것일까.

#### IV. 隱과 溫柔敦厚

이별육가의 隱은 潔身傲世의 自慢하고 있다. 『一竿眞味滋 世間求利輩 何必要相知』, 『如何世上子 不知有清濁』라고 하여, ‘一竿眞味滋’의 독선과 ‘濯纓濯足’의 高蹈를 자만하고 있다. 그 자만은 萬丈의 氣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산십이곡의 隱에는 그런 자만이 없다. 『이러들 엇다흐며 더러들 엇다흐료…』, 『當時에 네던 길흘 몇히를 버려두고…』의 장이 그렇고, 다음장 역시 마찬가지다.

煙霞로 지블 삼고 風月로 버들 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 가뇌

7) 權好文:『間居錄』, 松巖集 권5 錄

이 등에 버라는 이른 허브리나 업고자

(陶山十二曲)

이 장의 隱은 『山水속에서의 悠悠自適』일 따름이다.

도산십이곡의 隱은 그 밑바닥에 비록 泉石膏肓을 깔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潔身傲世로서 자만하지 않는다. 이 점이 도산십이곡의 시적 품격—‘溫柔敦厚’다. 이 품격에서 퇴계의 그 근엄한 ‘敬’공부를 읽을 수 있다. 隱을 자만할 때 온유돈후의 實은 적어지는 것이다.

퇴계는 隱에 철저하였지만, 그 자만이 潔身亂倫에 흐르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다.

옛 山林을 즐긴 자를 보건대 둘이 있다. 玄虛를 그리워하고 高尚을 섬겨 즐기는 자가 있고, 道義를 기뻐하고 心性을 길러서 즐기는 자가 있다. 전자를 따른다면, 潔身亂倫에 흘러 심한 즉 鳥獸와 무리지어도 그릇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됨이 두렵고, 후자를 따른다면, 좋아하는 바는 糟粕뿐이오 그 전할 수 없는 妙에 이르러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얻을 수 없으니,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오. 그러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스스로 힘쓸지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는 않겠다.<sup>8)</sup>

라고, 그 자만이 老莊의 無爲에 흘러 潔身亂倫에 빠지는 것을 저어하였다. 이 점은 松巖도 마찬가지다. 松巖은 問居錄에서 결신방세를 그렇게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그 글 끝에서

悠悠日月과 休休心事로 길이 皇王帝伯의 위에 서고 人世의 富貴 속에서 頓絶하니, 可히 窮天地하고 細萬物하여 獨往할 수 있다. 何必超鴻濛하고 混希夷하여 窈窕冥冥한 然後에라야만 閒이라 이를 수 있겠는가.<sup>9)</sup>

라고 말하여, 노장을 배척하였다.

퇴계가 이별육가의 隱을 ‘자만스러운 것’으로 여긴 것은 眉叟·許穆의

8) 李 滉: 『陶山雜詠記』, 退溪全書 권3 詩

9) 20)과 同

글을 보면 분명하다.

藏六堂六歌가 세상에 전하는데, 退陶先生은 그것을 太傲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遺世放迹에 그 말은 당연하다. 濁世를 만나면 潔身遠引하여 世累를 잊을 수 있으니, 죽히 魁梧傑出 高蹈拔俗의 箕穎之風을 想見할 수 있다. (藏六堂六歌識)<sup>10)</sup>

이 글에서 말한 ‘太傲’는 퇴계의 評言 ‘玩世不恭’을 가르키는 것이다. 眉叟의 이 글에서 퇴계가 왜 이별육가를 완세불공하다고 평하였는가의 그 이유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퇴계는 이별육가를 어느 면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결국은 그것을 ‘傲’하여 도산십이곡을 지었는데, 그것은 첫째 이별육가의 형식—六歌(6장)가 마음에 든 때문이고, 둘째는 이별육가의 내용—隱에 관심하게 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隱’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겨 『완세불공의 뜻이 있고 온유둔후의 實이 적다』라고 평한 것이다. 그 평은 『隱의 自慢』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된다.

‘溫柔敦厚’는 도산십이곡의 시적 품격이다. 그것은 퇴계의 敬工夫에서 이룩된 抒情—性情的 醇正—이다.

(『陶山十二曲攷(一)』은 人文科學 13輯(成大·人文科學研究所)에 게재)

10) 許 穆: 記言別集 권10 2)를 참조함

### 陶山十二曲攷(三)

• 目 次 •

I. 興과 賞自然

II. 就日用處와 賞自然

陶山十二曲의 賞自然=風流를 살펴보겠다.

#### I. 興과 賞自然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소酒흔디  
萬卷生涯로 樂事이 無窮하야라  
이 등에 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홀고.

(研學·一)

이 장(研學·一)의 내용은 퇴계의 『陶山雜詠記』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것을 들어보겠다.

五년만에 堂 두 채가 되어 겨우 거처할만 하였다.

堂은 세 칸인데, 중간 한 칸은 玩樂齋라 하였으니, 그것은 朱先生의 名堂室記의 『樂而玩之 足以終吾身而不厭』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동쪽 한 칸은 岩棲軒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朱先生의 雲谷詩의 『自信久未能 岩棲微效』라는 말을 따온 것이다. 그리고 합해서 도산서당이라고 현판을 달았다.……………

谷口岩에서 동으로 몇 걸음 나가면 산기슭이 끊어지고 濯纒潭에 이르는 데, 그 위에는 큰 돌이 마치 깎아세운 듯 서서 층으로 포개진 것이 십여 길은 될 것이다. 그 위를 쌓아 대를 만들고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며, 위로 하늘과 밑으로 물에는, 새와 고기가 날고 뛰며, 좌우 푸른 산은 그림자를 물속에 드리워, 강산의 좋은 경치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이것이 天淵臺다. 그 서쪽 역시 이것을 본따서 대를 쌓고 天光雲影臺라 하였으니, 그 훌륭한 경치는 천연대에 못지 않다.……

혹은 돌에 앉아 샘물을 구경도 하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여울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친하면서 마음대로 시름없이 노닐다가, 좋은 경치를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 안에 쌓인 책이 가득하다. 책상을 마주하여 잠자코 앉아 삼가 마음을 잡고 이치를 궁구할 때, 간간이 마음에 얻는 것이 있으면 흐뭇하여 밥 먹기는 잊어버린다.……

또 봄에는 산새가 즐거이 서로 울고, 여름에는 초목이 우거져 무상하며, 가을에는 바람과 서리가 차갑고, 겨울에는 눈과 달이 서로 엉기어 빛나며, 사철의 경치가 틀리니 흥취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춥거나 덥거나, 또는 큰바람이 불거나 큰비가 올 때가 아니면, 어느 날이나 어느 때나 나가지 않는 날이 없고, 나갈 때나 돌아올 때나 이와 같은 것이다.<sup>1)</sup>

研學·一의 장은 陶山雜詠記의 축소판이다. 『往來風流』가 天淵臺 등에서의 山水遊賞=賞自然을 뜻함을 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퇴계는 그 山水遊賞을 『좋은 경치를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1) 李滉. 『陶山雜詠記』·退溪集 卷三詩, 국역퇴계집 I · 고전국역총서 20 참조.

즐긴다, 『너무 춥거나 덥거나, 또는 큰바람이 불거나 큰비가 올 때가 아니면, 어느 날이나 어느 때나 나가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무척 흥겨워 하였다. 그리하여 그 흥을

春風이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름과 흥가지라  
흥몰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잇슬고.

(言志·六)

라고 읊었다.

四時の 경치를 보고는 몰아일체의 흥을 느꼈다. 그 흥이 魚躍鳶飛 天光雲影에 이르러서는 『어찌 끝이 잇슬고!』라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이 흥은 산수유상에서 예사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를테면 상춘곡이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桃李杏花는 夕陽裏에 쨍여 잇고·  
綠楊芳草는 細雨中에 프르도다·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造化  
神功이 物物마다 현스롭다·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  
다 嬌態로다·物我一體어니 흥인들 다물쏘나.

라고 읊은, 그런 흥과 같은 것일까.

이런 흥을 ‘抒情으로서의 흥’이라고 한다면, 도산십이곡의 흥은 어떠한가. 얼핏보면 『四時佳興』의 흥 역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四時佳興』을 도산잡영기는 『봄에는 산새가 즐거이 서로 울고, 여름에는 초목이 우거져 무성하며, 가을에는 바람과 서리가 차갑고, 겨울에는 눈과 달이 서로 엉기어 빛나며, 사철의 경치가 서로 틀리니 흥취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抒情의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다음의 『흥몰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잇슬고』를 보면, 이 흥은 抒情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리개는 날아 하늘에 오르고·고기는 소에서 뿔다·鳶飛戾天魚躍于淵, 『하늘빛과 구름그림자는 물에 어린다·天光雲影共徘徊』, 이 둘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치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왜 『어찌 끝이 있을고』라고 감탄해마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이것들에서 자연의 理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魚躍鳶飛 雲影天光』에서 造化流行의 활발을 본다. 그리고 『春風花滿山 秋夜月滿臺』에서 사시순환의 정연을 본다. 활발과 정연을 보고서는 자연의 理에 숙연해진다. 거짓 없는 자태·있는 그대로의 드러남—天地化育의 至誠—을 보고는 웃기를 여민다.

이렇듯 『자연의 理의 분명함』(上下察)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四時佳興이 사름과 혼가지라』다. 그리하여 그 깨달음의 감동은 『어찌 그지 잇슬고』의 감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이 이념적 감동은 곧 도산십이곡의 시적 감동이기도 하다.

이 시적 감동은 후세인에게도 이어졌으니, 蘆溪 朴仁老는

罷釣徘徊하며 波心을 구어보니·雲影天光은 얼희여 잠겨논디·魚躍于淵을 구름우히 보아고야·한문득 驚怪하야 俯察仰視하니 上下天이 宛然하다.

(蘆溪歌)

라 읊고, 趙星臣은

西臺를 다 본 後의 東臺의 올라 안져·四方을 살펴보니 일흠 도타 天淵臺야·雲間의 더 소리기 너난 엇지 나랏스며·江中の 더 고기야 너난 엇지 썬노나뇨·우리 聖王 수고하샤 作人하신 餘化런다. 形容 잘한 活潑潑地 費隱章이 여긔런다.

(陶山別曲)

라고 읊어, 그 감동을 흠모하였다.

## II. 就日用處와 賞自然

산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대하여서는 흥을 느끼고 감동에 젖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愚夫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감동이 시적(이념적) 감동으로 자각되어 流行자연의 隱微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성인도 못다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쉽든 어렵든 誠心으로 一以貫之(主一)하는 곳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퇴계는 이 즐거움을

愚夫도 알며 흥거니 귀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못다 흥시니 귀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냇 둥에 늙는 줄을 몰래라.

(研學·六)

라고 읊었다. 이에서 퇴계는 敬工夫를 읽을 수 있다(물론 이 장은 직접적으로는 『君子之道』를 읊은 것이지만, 도산십이곡의 주제인 ‘言志’ ‘研學’은 하나의 주제영역으로 融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자연의 측면에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퇴계는 ‘賞自然의 감동’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 山林을 즐긴 자를 보건대 둘이 있다. 玄虛를 그리워하고 高尚을 섬겨 즐기는 자가 있고, 道義를 기뻐하고 心性을 길러서 즐기는 자가 있다.

전자를 따른다면, 潔身亂倫에 흘러 심한즉 鳥獸와 무리지어도 그릇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됨이 두렵고, 후자를 따른다면, 좋아하는 바가 糟粕뿐이오. 그 전할 수 없는 妙에 이르러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얻을 수 없으니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오. 그러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스스로 힘 쓸지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는 않겠다. 또한 어느 여가에 세속의 번거로움이 내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으랴.

어떤이가 말하기를 『옛 산을 사랑한 이는 반드시 名山을 얻어서 스스로 의탁하였는데, 그대는 淸涼山에 살지 않고 여기에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라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淸량산은 壁立萬仞하고 危臨絶壑하니 늙

고 병든 이의 편안히 살곳이 못된다. 또 樂山樂水는 하나도 빠져도 안 되는데, 지금 洛川은 비록 청량산을 지나오지만 산속에서는 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나는 본래 청량산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곳을 뒤로 하고 이곳을 먼저 하는 것은, 산과 물을 겸하여 늙고 병든 이에게 편하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어떤이가 말하기를 『古人の 즐거움은 마음에서 얻어진 것이지 外物에 假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다. 저 顏淵의 陋巷과 原憲의 甕牖는 山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므로 그대가 外物에 依待하는 바가 모두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라 하였다.

나는 답하기를 『顏淵과 原憲의 處한 바는 특히 그 適然히 안심함이 귀한 것이니, 만약 이분들로 하여금 陶山의 境地를 대하게 한다면 그 즐거움이 어찌 우리보다 깊지 않다고 할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孔子 孟子는 山水를 대하여서는 언제나 極稱하고 深喻하였다. 만약 그대의 말을 믿는다면, 與點之嘆은 어찌 沂水위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卒處之願은 어찌 홀로 蘆峯의 산마루에서 읊어졌겠는가. 이것은 꼭 그 까닭이 있는 때문이다』라고 하며,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다.

(陶山雜詠記)

이 글에서 상자연에 대한 퇴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글은 『즐거움은 자연을 매개하여 얻어진다』를 주장한 것이다. 퇴계는 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이와와 문답형식을 취하여, 먼저 어떤 이로 하여금 『古人の 즐거움은 마음에서 얻어진 것이지 외물에 假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외물에 依待하는 바는 모두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물음을 내게 하고, 이에 대하여 퇴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히 반대하여, 그 이유로서 공자 맹자가 산수를 極稱深喻한 일과 孔子의 與點之嘆의 주자의 卒歲之願이 沂水와 蘆峯의 산수 속에서 나왔음을 들고는 『이것은 꼭 그 까닭이 있는 때문이다』라고 답하였다. 『그 까닭』은 어떤 이가 물은 바의 『外物에 假托한다』·『外物에 依待한다』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자연을 매개한다』를 의미한다. 자연을 매개함은 즐거움을 얻기 위함인데, 그 즐거움은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 즐거움』이다. 이상의 퇴계의 주

장은, 자연을 매개함으로써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 즐거움』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을 매개함』에는 태도가 문제가 된다. 퇴계는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평이한 것을 얻어 매개하였다. 『소리개는 하늘에서 날고 고기는 물에서 뛰는다』와 같은 평이한 것을 통하여 조화의 활발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愚夫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靑山은 옛데 흐여 萬古에 푸르르며  
流水는 옛데 흐야 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다.

(研學·五)

靑山の 『萬古에 푸르르며』와 流水의 『晝夜에 굿디 아니논고』를 통하여 『主一無適』으로 나아가고,

幽蘭이 在谷호니 自然이 들디 도해  
白雲이 在山호니 自然이 보디 도해  
이 둥에 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호애.

(言志·四)

幽蘭의 『들디 도해』와 白雲의 『보디 도해』를 통하여 『湛然虛明』을 찾는 것이다. 이렇듯 평이한 것으로부터 理로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퇴계의 시적 감동이고 상자연이다.

평이한 것을 통하여 본연을 깨닫는 경지를 퇴계는 南時甫에 주는 두 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一)

心氣의 병은 바로 理를 살핌이 투철치 못해, 쓸데없이 천착으로 무리하게 탐구하며, 마음가짐에 어두어 『싹을 뽑아 성장을 돕듯』(掘苗而助長)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괴롭히고 정력을 소모하였기 때문에 이

에 이른 것이다. 이 또한 初學들의 공통된 병통이다.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공이 알고 있듯이, 제일 먼저 세상의 窮通得失과 榮辱利害 등 일체를 생각 밖에 두어, 마음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책을 읽어도 마음을 괴롭힐 정도로 읽지 말 것이며, 절대로 많이 읽으려 하지 말 것이다. 다만 마음 내킴에 따라 그 뜻을 음미하여 즐기고, 理를 궁구함에는 모름지기 日用(일상생활)의 平易하고 明白한 곳에 나아가 看破하여 숙달케 할 것이다. 이미 아는 바에 의하여 편안하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음미하고, 오직 유의하는 것도 아니오 유의 아니하는 것도 아닌 사이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꾸준히 계속하여 功을 오랫동안 쌓으면, 저절로 融會되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너무 집착하거나 마음을 얽매어 그 빠른 효과를 거두려 해서는 더욱 안 된다.

보내 준 편지에서 말한 『涵養』 『體察』은 우리 儒家의 으뜸되는 취지이다. 天理와 人事가 본래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 것은 좋다. 다만 『悟』자를 애써 말하였는데, 이것은 慈嶺에서 가져온 頓悟 超越을 말하는 佛家의 방법이지, 우리 유가의 主旨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니, 전에 말한 『역지로 찾아 助長한다』는 병통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면치 못하는 같다……

공이 보낸 詩의 古風은 의미심장하지만, 絶句는 의심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나도 흥내내어 차운해 보내니, 천리 밖에서 一笑하라.

聖言上達不言悟 · 功在循循積久中  
 既說無爲便脫誤 · 如何自說落禪空.

(二)

대체로 이 理는 日用(일상생활)속 어디에나 있다. 동작 중에도 쉬는 중에도 있고, 말하거나 묵묵히 있거나, 彝倫에 따라 應接하는 경우에도 있다. 平實明白하고 細微曲折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렇지 않음이 없다. 눈앞에 드러나 있으면서 또한 ‘아무 조짐도 없는데’(無朕)로 들어간다. 初學들은 이것을 버리고 성급히 高遠深大한 것을 일삼아, 지름길에서 재빨리(손쉽게) 얻으려 하지만, 이는 子貢도 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한갓 수고로움만 있을 뿐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망연히 의거할 實이 없다. 延平은 『이 도리는 순전히 日用處에 있다』고 하였는데, 뜻깊은 말이다.<sup>2)</sup>

### 위 두 글의 요지는

리를 궁구함에는 모름지기 日用(일상생활)의 평이하고 명백한 곳에 나아가 간파하여 숙달케 할 것이다(窮理須就日用平易明白處 看破教熟).  
에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퇴계는 『鳶飛魚躍』 『天光雲影』 『春風花滿山』 『秋夜月滿臺』의 日用平易明白處에 나아가 궁리하였다. 이것이 퇴계의 상자연의 태도다. 이 태도를 도산잡영기에서 『山水에 依托하여 道義를 기뻐하고 심성을 길러서 즐긴다』라고 말하였다. 이 태도에서 도산십이곡의 品格(詩性)인 『溫柔敦厚』가 우러나는 것이다.

위 편지에서 퇴계는 불가의 『悟』를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悟는 頓悟 超越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가의 主 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말은 『悟는 日用處(日用平易明白處)에 나아가 궁리하지 않는다』를 지적한 것이다. 편지 끝에 붙인 시 『성인은 上達을 말하였을 뿐 悟는 말하지 않았네 · 功은 순순히 積久하는 속에 있노라 · 이미 무위를 말함이 도를 脫誤함인데 · 어찌 禪空에 떨어짐을 스스로 말하느뇨』를 보면 그 이유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 노장에 대하여는 어떠하였는가. 도산잡영기에서 『玄虛를 그리워하고 高尚을 섬겨, 鳥獸와 무리지어도 그릇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여 노장을 배척하였다. 이 배척 역시, 日用處에 나아가 循 積久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뵈  
古人을 못 봐도 녀던 실 알피 잇네  
녀던 실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研學 · 三)

2) 李 滉. 『自省錄』 · 退溪集 續集 권5.  
尹絲淳. 『退溪名著譯註 · 自省錄』 · 退溪學報16 참조.

『古人의 녀던 길』이 성현의 學을 가르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성현의 賞自然』을 가르킨다고도 볼 수 있다. 도산잡영기에서 든 『聖賢의 상자연』은 공자의 與點之嘆과 주자의 卒歲之願이다. 그것은 日用處의 산수에 나아가 시적 감동을 통하여 理를 궁구한 것이다.

불가와 도가에 대한 배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 그 배척의 이유는, 불가의 『頓超』와 道家의 『玄歲』는 儒家의 『窮理』는 모름지기 日用平易明白處(日用處)에 나아가 看破教熟하여야 한다』와는 어긋난다는 것이다.

위 주장을 賞自然=樂山水의 경우로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인간과 자연이 合一함에 있어서, 즉 人性과 天理가 合一함에 있어서, 佛家와 道家에서는, 사람과 자연은 無媒介로 合一한다. 그러나 儒家에서는, 사람은 日用處를 매개하여 자연과 合一한다.

유가의 자연관은, 산수경치를(日用處로서의 산수경치)에 대한 시적 감동을 매개하여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기한다.

이것이 퇴계의 賞自然이다.

퇴계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四時佳興이 사롭과 흥가지라』라고. ‘흥가지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四時佳興의 무매개적 합일’을 주장한 것은 아닐 것이다. 퇴계는 시적 감동이라는 ‘主體的 體驗=體察’을 매개하여 자연과의 합일로 나아간 것이다. 여기에 퇴계의 敬工夫=存養省察이 있다.

淳風이 죽다 흥니 眞實로 거즈마리  
人性이 어디다 흥니 眞實로 올흔마리  
天下에 許多英才를 소겨 말숄가.

(言志·三)

상자연의 목적은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른다』에 있다. 그것은 곧 『人性이 어디다』를 실현하는 것이다. 『淳風이 죽다』는 불가와 도가의 자연관을 지적한 말이다.

煙露로 지불 삼고 風月로 버들 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뇌.  
이 등에 브르논 이른 허므리나 업고쟈.

(言志·二)

퇴계가 이별육가를 玩世不恭이라 평한 것은, 그 노래의 『隱』이 潔身傲世에 흐른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때문인 것이다. 즉 이 평은 隱이 頓超이나 玄虛에 흐르는 것을 경계한 말일 것이다. 隱이 궁리의 매개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칫하면 『索隱行怪』로 흐르는 것이 아닐까. 퇴계는 색은행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問學하는 사람으로서, 平常恰好處에서 道를 구하지 않고, 문득 乖異嶮崎한 곳에 발을 들여놓아, 循序入道에 無望하게 되어서는 도리어 索隱行怪에 돌아가는 자가 많으니 심히 한탄스럽다.<sup>3)</sup>

『이 등에 브르논 이른 허므리나 업고쟈』라고 다짐하였는데, 그 다짐은 곧 완세불공·색은행괴에 대한 성찰이다.

이 장(言志·二)에서 특히 도산십이곡의 시적 품격 ‘溫柔敦厚’를 읽을 수 있다.

3) 李滉. 『答李乎淑』·退溪集 권37